



HAL
open science

Isabelle Sancho

► **To cite this version:**

Isabelle Sancho. . The 20th Yulgok Culture Festival: 2007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he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SungkyunKwan University, Oct 2007, Paju, South Korea. ⟨hal-02904514⟩

HAL Id: hal-02904514

<https://hal.science/hal-02904514>

Submitted on 22 Jul 2020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율곡학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이사벨 산초

(Dr. Isabelle SANCHO)

한국국제교류재단 박사후 연구원

하바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먼저 저를 초대해준 유교 문화 연구소와 파주의 율곡 축제 조직위원회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21 세기 율곡학의 발달에 대해 논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나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시각이 유럽 특히 프랑스적 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다소 협소한 관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율곡과 그의 사상은 21 세기 서구국가들과 한국의 상호이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호 이해는 미래의 한국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율곡학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만드는 가장 긴요한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국제적 갈등이 극심했던 20 세기에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 세기는 동시에 새로운 “근대” 사회를 진보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곤경을 극복 하기 위한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문화적 자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의 가장 발전된 나라중의 하나 입니다. 이 발전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과거의 지적인 유산인 한국의 ‘도덕적’ 혹은 ‘철학적’ 자원으로 일반적으로 생각 됩니다.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두 영역인 전통과 현대의 문제는 변화 도상에 있는 사회에 언제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를 연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21 세기에 이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입니다. 21 세기의 율곡학 연구의 역할을 다루는 것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일반적 반성의 한 부분 입니다. 우선 현재 율곡학의 방법론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20 세기를 지배했던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적, 지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율곡학의 최근 역사의 매우

일반적인 종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새로운 21 세기의 율곡학의 발전과 전파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20 세기의 율곡학 연구: 역사적으로 제한적인 ‘상징 작업’과 지성적, 철학적 접근의 보편화

몇 년전 황의동 교수는 20 세기 율곡학의 발전을 요약한 유익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발전이 1980-90 년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으며 학술 논문은 대개 율곡의 “철학”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술적 발전은 대중화 작업, 담론, 행사의 증가와 더불어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율곡을 선양하는 몇 협회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방향은 수렴되었고 사실상 함께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학문적인 업적과 대중화 작업은 보통 같은 인물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는 두 가지 목적을 겨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곡학”이라는 학문적 장을 만들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젊고, 현대적이고, 유복한 한국인들 (혹은 외국인 추종자들) 이 율곡의 철학을 매일의 생활에 보존하고 적용, 이용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적은 역사적으로 이미 제한 된 것 이며 또 한계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소위 율곡학이 한국 학계에서 연구되는 방법은 대부분 철학적 접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 접근법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서 율곡 사상의 연구의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율곡과 다른 한국 유학자 비교연구, 사단칠정논쟁, 심성론, 인심도심설의 문제, 퇴계학과 율곡학의 차이와 갈등 등등. 최근 서울대 정원재 박사의 논문에 의해 촉발된 논쟁 같은 것이 이런 학문적 전개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논쟁은 율곡학의 어떤 위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제한된 개념과 결론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당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문의 특징들은 20 세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 되어있습니다. 대학의 조직과 학문의 분류는 일본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 분류는 아시아에서

20 세기 초반의 특수한 문제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과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은 서구적인 학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개념과 학문적 범주는 ‘무로부터 창조’ 되었고 유교는 철학이라고 분류된 학문적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서구 학문은 유럽 철학의 경향과 발전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교수라고 하는 전문철학자의 영역을 만든 독일 철학의 주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의 모델을 수입하여 유교는 철학으로 분류되고 규정되어 추상적 이론으로 환원 되었습니다. 이런 분류는 유교의 인류학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잊어 버리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성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역사적 현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유교는 다수의 실천영역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유교가 철학적 이론과 추상적 개념으로만 연구 될 때 그 핵심이 오해 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분리되어 전문가들의 지적인 토론의 대상에 국한 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문학, 철학, 역사, 정치학 이라는 엄격한 분과뿐 아니라 한국학이라는 개념도 유교의 이 복잡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학술지와 평론에서 보여지듯 율곡의 사상과 사교에 대한 많은 방법론적 접근이 시도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들은 제한된 학문영역에 국한 되었으며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현학적 작업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다 학문적 시각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대중화 작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작업들은 율곡 사상의 평이한 이해와 율곡 사상이 현대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한국 스스로의 국가적, 도덕적 가치의 확립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아시아적 가치”의 논쟁 혹은 동남 아시아의 유교적 가치의 논쟁에서 보듯,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현안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논쟁은 헌팅톤이 이야기 한 “문명사이의 충돌” 이라는 개념을 따르기가 쉽고 이와 같은 단순화된 관점은 소위 지구화 시대에 다른 문화 간의 가치 있는 교류를 만들어 내기 힘듭니다. 율곡의 경우, 대중화 작업은 그를 한국의 대표적인 천재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정립 시켜 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관료이며 성현인 것입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완벽한 어머니인 신사임당과 율곡의 관계는 대중들에게 강조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율곡이 한국 지폐에 쓰이는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곡의 도덕적 아우라는 다른 집단적 표상이 그렇듯 “상징작업” 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이 “상징작업”은 20세기 남한의 역사적 맥락에 의해 동기 지워진 것입니다; 상징작업이 왜 필요했나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21세기라는 세계의 구분된 시대에 율곡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역사적 본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징작업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미래의 한국사회와 세계 안에서 그 역할을 고려하여 민족적 전통을 규정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세기의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직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시아는 이 새로운 세기에 세계를 이끌어간 주요한 힘을 가진 곳이 되리라고 여겨 집니다. 서양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지리, 역사, 다양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 되고 이러한 궁금증에 더해서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율곡학의 전파도 이런 서구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흥미롭고 전도유망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또 이는 한국사회 안에서 한국의 전통과 정체성의식을 심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율곡학의 역할과 전망 : 프랑스적 관점에서

현재 받아들여 지고 있는 율곡학의 개념과 실천을 넘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양의 방법론이 기여할 바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20세기 프랑스 학문발전의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역사학에서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발전하는 (광의의) 사회과학의 성과를 통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문제의식과 담론과 실천과 더불어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랑스의 학문적 경향을 “아날르 학파(*l'Ecole des Annales*)”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역사학자들이 1929년 후반 만든 첫 학술저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¹. 이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목적은 주로 정치사에 집중된 전통적 역사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은 사회학, 민족학, 경제학,

¹ 아날르라는 마르크 블로흐와 루시앙 페브르가 1929년 창간, 편집하였습니다. 이 저널의 첫 이름은 *The 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였으며 후에 *Annales.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으로 1994년에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날르 학파에 대한 영어로 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Peter Burke. *The French Historical Revolution: The Annales School, 1929-1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François Dosse. *The New History in France: The Triumph of the Annal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Lynn Hunt and Jacques Revel (eds). *Histories: French Constructions of the Past*. The New Press. 1994.

지리학, 경제학, 신 문학비평, 미학 등 새로운 사회과학에 의해 도전 받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는 역사학을 다른 “인간과학들”의 성과를 종합하는 광범위하고 완전한 과학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우리가 세계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공유의 기억의 문제를 다루어 결과적으로 공통된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다른 이유로 하여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작업들이 역사학자들의 작업뿐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개혁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역사학자는 더 이상 대학교수나 박학 다식한 학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의 동시대적 논쟁에 참여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에 비추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율곡의 전문가가 좁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율곡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프랑스 아날르 학파의 역사가들 처럼, 율곡의 전문가들은 좀 더 포괄적인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사회과학의 가능한 기여를 율곡학에 통합하여 우리의 방법론적 실천을 확장하고 풍부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한국의 지적 유산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 율곡이 오늘날 연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의 가능한 논지는 율곡은 철학자라기 보다 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시대의 규정된 양반 계급의 일원이었으며 가계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자 였으며 詩, 書, 경전 주석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서구인들인 관심을 가질만한 사실은 그가 유학자이면서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은 중국에는 존재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존재 하는 것으로 이 특징은 우리가 밝혀내고 연구하고 설명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유교의 원리를 개인과 사회의 수준의 실제 생활의 여러 측면에 완전히 실현해보려는 이상주의적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철학자인 율곡 자신이 이론적, 추상적, 문헌적 유교에 반하는, 살아있는 유교의 고무적인 모범인 셈입니다. 게다가 여러 다른 한국의 유학자 중의 율곡의 특징은 그의 삶, 역사적 맥락 인격에 깊이 관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곡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많은 연구 중에 현재 가장 긴요한 것은 그의 저작의 목록을 비판적으로 만들고 그 모든 저작의 시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나

같은 것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작에 대해 통시적, 공시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텍스트가 쓰여진 맥락, 연대기, 율곡의 전기에 대해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 져야 합니다. 그의 저술 스타일과 어휘에 대한 연구 역시 그의 사유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문학비평에서 빌어온 많은 접근법은 그의 텍스트를 읽고 주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그의 인격, 삶과 그의 저작 사이의 살아 있는 복잡한 상호관계 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정치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경제적, 군사적, 농업적, 지적, 문화적인 동시대의 맥락과 사건의 섬세한 공시적 통시적 분석이 필수 적인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의 다른 분야보다도 소위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는 가장 쓰기 어렵고 엄격히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성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문화사나 철학사에서도 논의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태산과 같이 높다고 할지라도 율곡학을 넓게 확장하려는 노력은 율곡 사상 전파에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미래의 율곡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곡의 전문가, 추종자, 한국인 혹은 외국인, 대학교수 혹은 유학자, 역사학자 혹은 철학자 모두 21 세기에 그의 목소리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과 외국에 들리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